



Market Index / 6일

코스피지수 ▼

2920.53
-33.44

코스닥지수 ▼

980.30
-29.32

유가(WTI, 달러) ▲

77.85
+0.86

환율(원)

1USD
100¥살때
1222.52
팔때
1055.761180.48
1019.461EUR
1CNY살때
1385.08
팔때
197.681331.04
178.86

인구 증가율 최고지역은 아라·오라동

2021년 제주 인구 67만6759명… 10년 새 17.5% ↑
원도심 인구 급감하고 택지개발·혁신도시로 쏠려
동지역 일도1동·읍면지역에선 추자면 최대 감소

외지인의 제주이주 열풍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제주 주민등록인구가 최근 10년 새 10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택지개발 지구 추진이나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으로 조성된 서귀포혁신도시 일대에 집중되고, 양 행정시의 원도심에선 공통적으로 대규모 인구가 빠져나가 심각한 공동화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제주 주민등록인구는 67만6759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57만6156명) 대비 17.5%(10만603명) 증가했다. 인구가 20년 이상 50만명대에서 머물렀던 데에 견주면 놀라운 증가세다. 제주시 인구가 49만3096명, 서귀포시가 18만3663명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16.6%, 19.8% 늘었다.

양 행정시의 43개 읍면동(제주시 26개, 서귀포시 17개)의 인구변화를 보면 놀랍다.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시 아라동으로 2011년 1만4048명에서 지난해 3만8622명으로 174.9% 늘었다. 이어 제주시 지역에선 ▷오라동 143.4%(6530→1만5896명) ▷삼양동 135.1%(1만1008→2만5876명) ▷봉개동 73.5%(3034→5263명) ▷외도동 42.2%(1만5665→2만2278명) ▷애월읍 31.3%(2만8584→3만7532명) ▷조천읍 23.1%(2만752→2만5538명)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서귀포시 지역에선 혁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된 대륜동과 대천동, 영여교육도시가 조성된 대정읍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1년 6920명이던 대천동 인구가 2021년 1만3824명으로 99.8%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륜동 65.7%(9246→1만5325명)

▷중문동 34.2%(8899→1만1943명) ▷대정읍 34.1%(1만6552→2만2197명) ▷서흥동 30.3%(8499→1만1072명) ▷안덕면 27.2%(9615→1만2228명) 순으로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으로 2011년 3798명에서 지난해 2406명으로 36.7% 줄었다. 이어 제주시 지역에선 ▷추자면 33.9%(2401→1586명) ▷용담1동 21.9%(8755→6839명) ▷삼도2동 18.1%(9714→7955명) ▷건입동 18.0%(1만802→8854명) ▷용담2동 15.6%(1만7093→1만4430명) ▷일도2동 13.6%(3만7531→3만2441명) 순으로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서귀포시에서는 정방동이

2910명에서 2136명으로 26.6% 줄어든 것을 비롯해 중앙동 26.3%(4478→3301명), 송산동 20.1%(4979→3980명), 천지동이 11.0%(3864→3439명) 감소했다.

양 행정시에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원도심은 고령인구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공통점이 있어 행정 서비스도 편편일몰적이 아닌 거주인구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6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향실에서 공단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제주항공 국내선 4·3유족 할인 ‘호응’

생존희생자 50%·유족 40%

제주항공이 국적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주 4·3 할인’이 유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항공은 2018년 4월부터 제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내선 항공운임에 대해 연중 할인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생존희

생자 249명, 유족 8816명 등 총 9065명이 할인혜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의 제주 4·3 할인은 첫째 384명(생존희생자 26명, 유족 358명)을 시작으로 2019년 1993명(“ 94명, “ 1899명), 2020년 2507명(“ 59명, “ 2448명)이 40~50%의 항공운임 할인을 받아 탑승했다. 지난해에는 4181명(“ 70명, “

4111명)이 할인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65%인 5895명(생존희생자 108명, 유족 5754명)이 제주~김포 노선을 이용했으며, 제주~부산 노선은 1230명(“ 32명, “ 1198명)이 탑승했다.

제주항공은 4·3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들에게는 40%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각각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민 할인 등 다른 신분할인과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태윤기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난해 통합마케팅 실적이 전년보다 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조공법인 제공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마케팅 성과

지난해 판매실적 2857억원… 전년 대비 22% 성장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고성만, 이하 제주조공법인)이 2021년 한해 통합마케팅으로 판매할 실적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조공법인은 지난해 통합마케팅을 통한 판매실적이 2857억원으로 전년(2337억원) 대비 22.3%(520억원)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조공법인은 도내 19개 지역농협이 출자해 설립된 통합마케팅조직으로 2011년부터 농산물 판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866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제주조공법인의 괄목할 만한 통합마케팅 성적은 유통채널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FTA기업사업 추진 등에 주력한 결과다. 지난해 판매실적은 전국 조공법인(52개)과 도연합(8개), 시군연합(43개) 등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는 103개 산지유통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다.

특히 지난해 총 판매실적 중 전자상거래 실적이 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130㎡ 규모의 ‘제주농협 온라인 지역센터’를 열어 네이비 쇼핑라이브에서 감귤, 초당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온라인마케팅 역량을 강화했다.

제주조공법인은 이 밖에도 유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물류비 절감 실증사업 참여,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 시범사업 선정, 산지유통시설 보안사업 추진 등 사업내실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특색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가 시상하는 2021년 연합마케팅사업 종합평가에서 상·하반기 각각 ‘대상’과 함께 12월에는 ‘함께하는 유통혁신상’(상품소싱 오픈플랫폼 부문)에 선정돼 부상으로 승합차를 받기도 했다. 문미숙기자

5만원권 지폐 유통 수명 14년 11개월

코로나19와 신용카드, 페이 등 비현금 결제수단이 편입되면서 우리나라 지폐의 유통수명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의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5만원권 유통수명은 179개월로, 2020년보다 4개월 늘었다. 1000원과 1

만원권은 각각 1개월 늘어난 61개월, 131개월이었고, 5000원권은 3개월 늘어난 63개월이었다.

1000원권과 5000원권의 유통수명이 고액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주로 물품·서비스 구매, 거스름돈 등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문미숙기자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반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귤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투) 1, 4년생	·궁천 변이(오하라베)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3-20-08

010-2699-2355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신부리 형상과 뿌리손상 방지
▶미수익기간 단축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할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뿌리 형상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계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으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국내개발 우수한 [우리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내 품종

윈터프린스[황금향]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하례조생[궁천] ❖사라향[천혜향]

❖탐나는봉[한라봉] ❖제라몬[레몬]

과수농가 우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미니향(고당도) 오하라베(궁천변이)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망유자, 아마나스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으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선상읍 서성일로 999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한라봉 1년생
- 미니향 2년생
- 제라몬2년생
- 하귤(아마나스)1~4년생
- 황금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레몬3년생
- 미니몬1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오하라베1년생(궁천변이)
- 유라조생1~2년생
- 히노야까지 3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탕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으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